

 **쿠사카베 린:** 넵  
부모님은 고향(지정없음)에서 두 분끼리 살고 계신 걸로...

 **Kaming (GM):** 후무 그러면 린은 벌써 독립한건가요!  
두둥!  
아니면  
얼굴도 처음보는 쿠사카베사람들이랑 지내고 있으려나요

 **쿠사카베 린:** 일단 쿠사카베 가 안에선 사는데  
별채 같은 느낌  
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거의 마주치질 않아욤...

 **Kaming (GM):** 호응

 **쿠사카베 린:** 거진 가뒤편끼  
'감히 어디어디 천한 종가의 핏줄이'  
'우리랑 같은 마루에 서려고!' (찰싹)  
그렇게시작되는 막장드라마

 **악동양반:** 막드가 또

 **쿠사카베 린:** 그래서  
양말은 이틀씩 신고  
빨래는 일주일에 한번...읍읍

 **Kaming (GM):** ㅋㅋ

 **쿠사카베 린:** 냄새는 몸에 페브리즈를 뿌리면 된답니다!

 **Kaming (GM):** 후무후무 그렇군요

 **쿠사카베 린:** 요새는 다우니 향기~

 **Kaming (GM):** 그럼 잠시만~

 **쿠사카베 린:** 넵

 **Kaming (GM):** 좋습니다  
그러면 시작해볼까요?

 **쿠사카베 린:** 넵

 **Kaming (GM):** =====  
그래요 시간은 린이 쿠사카베의 성을 달게된 날.  
갑작스럽게 발현해버린 카미가카리의 힘.  
그리고 본가의 소환 어리둥절한 린  
부모와도 떨어진체  
고향에서 머나먼 교토까지 끌려왔습니다.

 **Kaming (GM):** 그리고 고풍스러운 일본식 저택의 방안에 덩그러니 놔두고 데려온사람들은 아무말없이 사라졌 습니다.

 **쿠사카베 린:** "흐음...?" @주변을 두리번두리번 살핍니다  
왠지 자신이 있어도 될 분위기가 아닌데...라는 느낌이 드네요

"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걸까?" @손에 이치노스케를 들고 물어봅시다만  
당연히 대답은 없습니다



**Kaming (GM):** 그러면 잠시후  
나이들어보이는 남자와 젊은 남자가 같이 들어옵니다.  
그러면 둘은 잠시 린을 훑어보듯 쳐다보네요.



**쿠사카베 린:** '음흠'  
"안녕하세요~" @첫인상은 역시 중요하죠  
발랄하게!  
귀엽게!

**쿠사카베 당주:** "흠..."  
@전혀 관심없는듯



**쿠사카베 린:** '으아...!' @압도되는 느낌  
**쿠사카베 당주:** "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능력이 발현하다니 정말 드문경우군."  
"너 이름이 무엇이냐"



**쿠사카베 린:** "앗, 네! 린이에요!"  
"잘 부탁드립니다!"  
하고  
인사를 하다가  
주변의 걸상 따위에 이마를 째  
"쿠엑!"



**Kaming (GM):** 나이든 남성은 여전히 무표정이지만  
젊은남성은 고개를 돌리고있는듯하네요.  
부들부들 떨고있는거보니 웃음을 참는듯

**쿠사카베 당주:** "바보같은짓은 그만하거라. 그래 린 분가의 자식이렸다?"



**쿠사카베 린:** "네? 분가... 아 네네! 그렇다고 들었습니다!"

**쿠사카베 당주:** "흠 카미가카리에 대해서는 알고있겠지?"



**쿠사카베 린:** (그렇다 그녀는 사실 시부야 린이나 토오사카 린이었다는 것이다)  
"네에... 음...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러운 조직의 힘으로 나쁜 놈들을 초능력으로 빠방! 하는 곳이란 건 알았  
습니다!" @빠릿!  
"마법소녀 같은 느낌?"

**쿠사카베 당주:** ".....뭐 대충그렇게 알고있으면 된다."  
"그건그렇고 보기도문 능력이더군. 그 인형 움직일 수 있나?"  
@안고있는 이치노스케를 바라보며



**쿠사카베 린:** "아, 이치노스케 말씀이세요? 물론이죠!"  
"자, 이치노스케! 일어날 시간이야!" @하고 살짝 내려놓으면  
인형이 쑥쑥 커지더니  
사람만해집니다  
"손!"  
척



**쿠사카베 린:** 하고 내미는 이치노스케  
"잘했어요~"

**쿠사카베 당주:** "호오...카미가카리로써의 능력은 완전히 각성한듯하군"  
@잠시 흥미롭게 인형을 보다가  
"그래 그러고보니 내 소개를 하지않았군. 나는 쿠사카베가문의 당주다. 그리고 이놈은 내 아들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쿠사카베 료우다"



**쿠사카베 린:** "네 안녕하세요!"

**쿠사카베 당주:** "오늘부터 너는 지금까지의 성은 버리고 쿠사카베의 일원이 된다. 앞으로 너는 쿠사카베 린이다."  
"그리고 카미가카리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할것이야."



**쿠사카베 린:** "쿠사카베 린, 쿠사카베 린, 쿠사파베 린.." @외우려고 하는 중  
"어, 그러니까..."  
"어쨌든 힘낼게요!"  
"헤헤..." @슬쩍 눈치를 봅니다

**쿠사카베 당주:** "허나 착각은 하지마라!"  
"쿠사카베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들...너는 분가의 자식"



**쿠사카베 린:** @움찔

**쿠사카베 당주:** "우리와 같아졌다고 생각하면 안된다."



**쿠사카베 린:** "흐.... 즉 어떡하라는 말씀....인가요?"

**쿠사카베 당주:** "너는 그저 운 좋게 능력이 발현되어 들어온것."  
"쿠사카베의 이름의 먹칠을 하는 행동이나. 감히 쿠사카베의 이름을 가지고 위세를 부린다는 행위를 한다면.."  
"그 즉시...엄벌에 처할것이다."  
@눈이 무섭네요.



**쿠사카베 린:** "으으..." @등골이 오싹합니다  
"히, 힘내겠습니다...." @기어들어가는 목소리

**쿠사카베 당주:** "흠...지켜보도록하지."  
@그러면 노려보던걸 멈추고  
"우선 기본적인것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있을꺼같구나"



**쿠사카베 린:** @고개를 갸웃합니다

**쿠사카베 당주:** "카미가카리는 무엇이며..어떤 존재와 싸우는지. 그리고 카미가카리의 싸움법에 대해서 말이지."  
"료우 저 아이의 교육은 너에게 일임하겠다. 최대한 빨리 교육을 마치도록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예 아버님"



**쿠사카베 린:** "가정교사 선생님인 거네요!" @반짝반짝 눈빛

**쿠사카베 당주:** 그렇게 말하며 당주는 다시 나가고요  
린과 료우만 남았습니다.

**쿠사카베 린:** "에헤헤..." @멋쩍은웃음



쿠사카베 료우: "글쎄에..그렇게 생각하고싶다면야.."

"자아 그러면 교육을 시작해볼까?"



쿠사카베 린: "암기는 쥐약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!" @인사하다 다시 한 번 광

"쿠엣"



쿠사카베 료우: "....."@ㅂㄷㅂㄷㅂㄷ

"큘..큘"

"자아 그 인형 너에게 소중한거?"

@이치노스케를 가리키며 물어보죠



쿠사카베 린: "네! 첫 친구예요!" @후후



쿠사카베 료우: "그렇구나..."@웃으며



쿠사카베 린: (핫...)



쿠사카베 료우: @이치노스케를 보이지않는 속도로 날려버립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...에?" @날아간 이치노스케와 료우를 번갈아봅니다

"무슨....?!"



쿠사카베 료우: "교육이야 교육"



쿠사카베 린: "이, 이치노스케!" @겁에 질린 얼굴로 이치노스케쪽으로



쿠사카베 료우: "흐응 감싸는건가"

"네 능력은 분명...그 인형을 움직이는거지?"

@여전히 웃는표정을 지우지않으며

@다가웁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히잇..."

@감정에 동조한 건지 이치노스케가 기상합니다



쿠사카베 료우: "그리고..네눈..쓸줄알아?"

@두손가락으로 린의 눈을 가리키며



쿠사카베 린: "누, 눈....?" @더듬더듬 눈가를 만집니다

"뭐, 뭘 하고 싶은 거예요...!"



쿠사카베 료우: "그래 모르는구나 그럼 교육을 계속할까?"

이번엔 우산을 꺼내드립니다.

@그리고 다시 일어난 이치노스케를 다시 날려보냅니다.

빠악



쿠사카베 린: "까악!"



쿠사카베 료우: "이 인형 너의 소중한 친구잖아?"

"계속 가만히 있을꺼야?"

퍼억!



쿠사카베 린: "흑.... 으흑...."



쿠사카베 료우: 봉합한 부분이 점점 뜯어져가요



쿠사카베 린: "시, 싫어...!"  
"그러지 마...!"



쿠사카베 료우: "자아 자아 이대로라면 네 소중한 친구...."  
"사라져버려>?"  
빠악!



쿠사카베 린: "안 돼...,"  
"이치노스케에에에에!!!!" @절규  
그럼 그때 이치노스케의 몸이  
그로테스크하게 갈라지면서



쿠사카베 료우: (히익)



쿠사카베 린: 기괴한 총구들이



쿠사카베 료우: (살려줘)



쿠사카베 린: 무수히 뿔어져나오더니  
일제히  
료우를 노리고  
발포합니다  
@투다다다다다



쿠사카베 료우: "호오"  
그러면 잠시  
총탄때문에 자욱한 연기때문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.



쿠사카베 린: @린은 머리를 감싸고 몸을 숙이고 있다가  
조용해지자 고개를 듭니다



쿠사카베 료우: .....  
연기가 걷히면  
우상을 펼쳐서 몸음 숨긴 료우가 여유롭게 다시 우산을 접으며 연기를 해치며 다가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히익!" @뒷걸음질



쿠사카베 료우: "이야..그거 굉장한데"  
그러면 린의 코앞까지 걸어옵니다.  
"자아 인형은 그렇다쳐도.."  
"너는 어떨까?"



쿠사카베 린: "시, 싫어..." @뒷걸음질칩니다  
"오지 마...!"  
뭔가 등골에서 불쾌한 기운이



쿠사카베 료우: 그렇게 뒷걸음질치다보면



쿠사카베 린: 거슬러올라와



쿠사카베 료우: 어느세 벽에 등이 닿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목언저리에 쌓이는 느낌이...

"헉!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료우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다가오고있지요.  
"너의 몸은..어떻게 지킬꺼지?"



**쿠사카베 린:** 린은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공포 속에서  
몸을 떨고 있다가  
이상한 숨이 단숨에  
목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 
"온 아로리키와, 소와카!?"  
린은 모르지만 그건 진언이라 불리는 것



**쿠사카베 린:** 그러더니...  
눈앞이 새하얗게 물드는 것 같더니



**쿠사카베 료우:** (그런고얌!?)



**쿠사카베 린:** 눈에 커다아란 이물질이 들어온 것처럼 시린데  
눈을 감을 수 없는데  
이대로는 분명 큰일이 생길 거 같아서  
고개를 위로 들어버립니다  
그리고 눈에서 비이이이이임!!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호오.."



**쿠사카베 린:** 강화된 영력으로 지붕을 뚫는다!  
(진언 부분은 적당히 설정을!)  
(붙였다!)



**쿠사카베 료우:** 그러면 료우는 제자리에 서서  
뚫린 구멍을 쳐다보겠네요.  
"뭐 이거면 똥나"  
그러면 아까처럼 두렵던 분위기는 사라지고'  
머리를 긁적이는 료우의 모습이 보이겠네요



**쿠사카베 린:** @분위기변화를 따라가지 못 한다!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훌륭히 능력을 개화했네. 축하해 축하해"  
어느새 우산도 사라지고 없네요  
"역시 충격요법만큼 확실하고 빠른것도 없지 음음"



**쿠사카베 린:** "...."

@린은  
그런 그를 눈물이 말라가는 눈으로 빤히 보다가  
가방에서  
방범부저를 꺼내서  
당깁니다



**쿠사카베 린:** [삐이이이이이익!!!!!!]  
그리고 가방에서 후추스프레이를 들고 달려든다!  
"그런 말로 넘어갈 줄 알고오오!!!"

"크와아앙!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헤에 기운넘치는 아가씨네"  
별로 놀라지않고 오히려 린을 가볍게 피하며



**쿠사카베 린:** "이름하고 얼굴 기억해뒀으니까 말이야!"  
"반드시 언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!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시끄럽긴한데 여기 이미 쿠사카베가의 집안이니까 그런거 올려봤자 누구도 오지않을꺼고"



**쿠사카베 린:** "내 발뺌는 시종으로 삼아줄테니까!"  
"절-데로 용서 안 할 테니까!"  
@씩씩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아까까지 울던 사람은 어디갔더라?"



**쿠사카베 린:** "모르겠는데!"  
@뽀에에에에에롱  
"멀치 여우눈 기생오라비!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건방진 꼬맹이네.."  
@살짝 움찔  
"어디 다시한번 교육해줄까?"



**쿠사카베 린:** "흥!"  
그러면 후딱 도망칩니다  
"오늘은 이쯤에서 봐주지!"  
이치노스케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버립니다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그렇게는 안되지~"  
문이 팡 하고 닫힙니다.



**쿠사카베 린:** "아닛!"  
"비겁하다!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아버님이 말씀하셨거든 최대한 빨리 너를 한사람의 카미가카리로 만들으라고"  
"오늘 느꼈던 감각...절대 잊으면 안되"  
"소중한것을 잃어버릴뻔한것."  
"목숨의 위협"



**쿠사카베 린:** "뭘, 뭐야..." @진지하니까 묘하게 기분 나쁘단 느낌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카미가카리로 살아간다는건 그런거니까"  
@여전히 웃는표정이지만 말만큼은 진심이죠  
"조오금 심하긴 했지만"  
"다 필요한거니까"  
이치노스케는  
웬 검은차림의 사람들이



**쿠사카베 료우:** 치료해줘서  
말정해졌습니다.

**쿠사카베 린:** 이게 쿠사카베집안의 재봉술....!

사실 재봉능력으로 오른 자리였던 건가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아무튼 방금일로 알았지?"

"네 인형과 네 힘을"



**쿠사카베 린:** "..." @묵묵히 고개를 끄덕

불만스런 표정입니다만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이제 네가 일반인과는 완전히 멀어졌다는거 실감이 가지?"



**쿠사카베 린:** "흥!"

"어차피 친구는 이치노스케로 충분하니까 상관 없거든!"

@단어사용에서 괜히 분함을 느꼈다

(그러하다 린은... 친구가 적다!)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그래..오히려 적은게 좋을지도 몰라 이 세계에선"

"하지만 친구가 인형이라니 그건 좀.."

@아니라고 보는데라는 표정



**쿠사카베 린:** "무, 무슨 섭섭한 말을!"

"그 표정 그만두지 못 해!"

@씨익씨익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차기 쿠사카베 가문의 당주에게 그런말투 정말 건방진 꼬맹이네"



**쿠사카베 린:** "흥 알까 보겠습니다 메에롱"

"친구는커녕 이번 기회에 새색시를 얻어서 먼저 결혼해주겠다고~" @도발

@메롱메롱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기운이 넘치나보네 좋아 그럼 교육을 이어서 해볼까"



**쿠사카베 린:** "어이쿠 슬슬 학원에 갈 시간이라..." @슬쩍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이번엔 조금 진심으로 갈꺼니까 아 걱정마..치료는 여기 사람들이 해주니까"

@웃음



**쿠사카베 린:** "경찰아저씨 이 사람이예요!"



**Kaming (GM):** 이후 린과 이치노스케는

메차쿠차 교육당했습니다.



**쿠사카베 린:** 히익

카미가카리가 되어버렸



**Kaming (GM):** -----

며칠후



**이치노스케:** 료우에게

?

뭐야 너



**Kaming (GM):** 료우에게

카미가카리로써의 지식과

**쿠사카베 린:** (드디어 제2인격을 얻었나 이치노스케...)



**Kaming (GM):** 싸움법

등등

며칠동안 쉴새없이 스파르타로 주입받은 린



**쿠사카베 린:** "꾸에에엑" @털썩

"이젠 무리...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흠..이정도면 어느정도 쓸만해졌네"

@우산을 집어넣으며

"한사람분은 하겠어"

"자 그럼 현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번의 설명했었지?"

"아~주 평화로워. 초상사건따위는 못본지 오래야"

"그런데 예외가 어디다?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@린에게 물어보죠



**쿠사카베 린:** "그쯤이야 당연히"

"알고 있지!"

"하사시노시잖아!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좋아 정답 잘했어요"

@ 짹



**쿠사카베 린:** (못 맞출 때마다 공격했다!)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그래서 이제 한사람분이 된 린은 그곳에 가게됩니다."

@웃음



**쿠사카베 린:** "엡"

"아니... 나 학교에도 다녀야 되고" @탄청

"이런 미소녀를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낸다니!"

"그 피부 밑에 정말로 빨간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!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어라 말안했었나.."

"쿠사카베의 이름을 얻기전에 너는 이제 없는거야"

"없는사람이 된거지"

"이미 네가 다니던 그 학교에 가봤자..널 알고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"



**쿠사카베 린:** "에....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네 고향?"

"너의 존재조차 잊었지"

"그야..이제 너는 '쿠사카베 린'인걸?"



**쿠사카베 린:** "그럴수가...."

"왜 그런 ....짓을....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그야.."

@린의 귓속에 대고

"네가 돌아갈곳이 없어지니까"

**쿠사카베 린:** 확 밀쳐내고



뒤로 물러납니다



**쿠사카베 료우:** @그럼 순순히 밀쳐집니다.



**쿠사카베 린:** "기분 나쁜 여우눈 멀치 기생오라비 악마...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건방지네 정말"



**쿠사카베 린:** @팍 찡그린 얼굴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그런 얼굴 보는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지"  
"너는 하사시로에 가야하니까"



**쿠사카베 린:** "....."

약간 집안 돌아가는 걸 알게 된 린은  
자신에게 거부권이 없음을 압니다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뭐 걱정마"

"네가 교육한 꼬맹이니까"  
"그리 쉽게 죽지는 않겠지"  
(내가)  
"뭐 지금은 그렇게 화내도.."  
"나중에는 고마워하게 될꺼야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@흐트러진 옷매무세를 다듬으며



**쿠사카베 린:** "...그때는 분명 아저씨 장례식일테지" @흥  
그러지 않는 이상  
고마워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 
흥흥



**쿠사카베 료우:** "그럼 오늘로 마지막 교육을 끝낼게. 수고했어 '쿠사카베 린'"  
하며 방을 나서려다가....  
뒤돌아서  
"아 이말을 까먹었네"  
"어서와. '쿠사카베'에"  
@웃음



**쿠사카베 린:** "....."



**쿠사카베 료우:** 그리고 다시 몸을 돌려  
방을 나갑니다.



**쿠사카베 린:** 이치노스케를 꼭 끌어안고  
"괜찮아 혼자라도 잘 할 수 있어"  
"이치노스케가 있는 걸, 그렇지?"  
"이런 곳에서 쓰러질 내가 아니라, 고...."

-



**Kaming (GM):** 이후..

당신을 끌고왔을때처럼 사람들이 와 당신을 데려갑니다.  
그렇게 당신은 하사시로 시에 도착하게되고..

아무도 아는사람없고 아무도 당신을 반겨주지않고 아무도 당신을 신경쓰지않는 그런 곳.

이후 다른사람의 말을 들어보니

원래 이곳에 있던 쿠사카베 가문의 카미가카리가 이곳에 있기싫어하여... 그 대타가 바로 린. 분가의 자식이며 그 누구의 보호막도없는..



**Kaming (GM):** 카미가카리로써의 능력을 가진 린이..

끌려오게된것입니다.



**쿠사카베 린:** "그 여우눈 멸치 기생오라비가"

"좋은 일로 날 보낼리 없다는 것쯤"

"알고 있었으니깐..."

@흥....



**Kaming (GM):** 며칠만에 린을 1사람의 카미가카리로 만든이유도 이때문이겠쥬



**쿠사카베 린:** (단기숙성코스....)



**Kaming (GM):** 그렇게 린은 고독하게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지내게됩니다.

아야네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

=====



**쿠사카베 린:** (즉 색시인 거시다)



**Kaming (GM):**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당



**쿠사카베 린:** 넵

감사했습니다!

기생오라비 마지 기생오라비

붓코로스!



**Kaming (GM):** 'ㅁ'

료우 애껴용



**쿠사카베 린:** 료우에게 내릴 벌은

하루 2시간씩 엘리자베스 치마 속에 넣기

내 발땀개



**Kaming (GM):** ㅋㅋㅋㅋ



**쿠사카베 린:** 유루사나잇!



**Kaming (GM):** 어떠셨나요?



**쿠사카베 린:** 즐거웠습니다

린이 오게 된 이유라던가

어떤 위치에 있었다거나

조금 명확해지니

좀 더 캐릭터를 연기하기 쉬워질 거 같네요

그냥 대충 뽐혀왔다는 느낌이라



**쿠사카베 린:** 좀 가벼운 느낌이 있었다보니



**Kaming (GM):** 하사시로 시는 언제나 사건이 끊기지않는곳이라

그 누구도 저곳에 가기 싫어했쥬